경제와 문화의 가교 한경

이 아침의 시

쾰른성당
-곡두 8

김민정(1976~)

우리 둘의 이름으로 초를 사서
우리 둘의 이름으로 초를 켜고
우리 둘을 모두 속에 섞어놨어.
모두가 우리를 몰라.
신은 우리를 알까.
우리 둘은 우리 둘을 알까.
모두가 우리가 우리인 줄 알겠지.
우리 둘도 우리가 우리 둘인 줄만 알겠지.
앙심찢 2유로만 넣었어.

시집 《너의 거기는 작고 나의 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중입니다》 (문학과지성사) 中

남산타워에 오르면, 절과 성당에 가면, 세상엔 간절한 사랑도 많고 간절한 환자도 많다는 걸 알게 되지요. 성당에 가면 성당 주변을 걸어도 좋고 잠깐 햇빛 속에서 눈을 감아도 좋을 텐데요. 새해의 소망을 빌어도 좋고 지나간 사랑을 잊어도 좋겠지요. 큰돈을 내고 거대한 소원을 빌기보다는 비슷한 이름들 속에 뒤섞여 작고 희미한 소원을 빌어도 좋겠지요. 인파 속에서 내가 당신과 뒤섞여 지워지듯이.

주민현 시인(2017 한경 신춘문예 당선자)

QR코드 찍으면 지난 시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MOBILE 한경
PC·폰·태블릿에서 만나는 프리미엄 디지털 신문
모바일 한경
▶미적분 계산하는 딜러닝 신경망 개발
▶직접 체험하고 소비하는 사람들
▶와인의 질 결정하는 오크통
▶금주에 추천하는 책
간편회원 가입하고 1개월 무료 구독

네이버·카카오·빅히트 … 잘나가는 기업이 앞다퉈 찾는 이 기업

'공간 설계의 미다스' 다원디자인 25년 흑자경영 비결

'네이버, 카카오, 넥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삼성회계법인, 보스턴컨설팅그룹, 구찌코리아….'

이들 회사는 정보기술(IT)부터 게임, 회계, 컨설팅 등 각 분야의 간판 기업이라는 것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이들 기업의 인테리어는 모두 다원디자인의 손을 거쳤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유수의 국내외 기업 오피스 인테리어를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을까.

다원디자인은 국내 1세대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다. 1995년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시장에 공간 설계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25년간 적자 한 번 없이 23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인테리를 바꾸고 있다.

매년 250여 개 기업 공간설계 의뢰

다원디자인은 오피스 내부 디자인 컨설팅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과거엔 기업들이 본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 다원디자인을 찾았다. 주로 업종이나 제품을 강조할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원했다. 최근엔 리노베이션(개보수) 수요가 늘고 있다. 폐쇄적이고 사무적인 오피스를 합업과 소통을 강조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피스로 바꾸려는 기업이 많아졌다.

다원디자인은 기업의 정체성과 경영철학을 공간에 잘 담아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별다른 광고나 공격적인 영업 없이도 국내외 대표 기업들이 줄줄이 다원디자인을 찾는 이유다.

10년 전만 해도 기업들은 최대한 많은 책상과 응접실을 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다. 지금은 달라졌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일하는 스마트워크가 확산하고 업무의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여유로운 공간 활용으로 직원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의 계열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은 경기 성남시 분당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고객 접견, 사무, 상품 안내실 등 성격이 전혀 다른 공간이 하나처럼 혼합되기를 원했다. 다원디자인은 수십 차례 인터뷰 끝에 쇼룸에 카페를 접목한 방식의 공간 설계를 제안했다. 사무 공간의 딱딱함을 줄이면서 고객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카카오도 다원디자인의 손을 거쳤다. 카카오는 내부 조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수직적 공간 개방을 원했다. 다원디자인은 공간과 공간 사이의 사무용 칸막이를 식물로 구성하는 '플랜테리어(플랜트+인테리어)' 개념을 적극 활용했다. 친환경적인 인테리어로 공간을 나누되 뚫린 듯한 느낌을 살렸다.

삼성회계법인은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다원디자인을 찾았다. 다원디자인은 회계법인에는 이례적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제안했다. 개인 좌석뿐 아니라 임원실까지 유연하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유 사무실이다. 회의실이 아니어도 조직원 간 동선이 겹치는 입구 주변, 계단 주변엔 모두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했다.

조서윤 다원디자인 회장은 공간 설계의 핵심으로 '비움'을 꼽았다. 조 회장은 "불필요한 과장과 포장이 없어야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확실해진다는 디자인 철학 때문이다. 다원디자인은 공간 설계 전 충분한 인터뷰를 고집한다. 기업들이 손사래를 칠 만큼 묻고 또 묻는다. 기업의 생각과 기대를 정확하게 읽어야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다.

국내 첫 공간설계 개념 도입

공간디자인 컨설팅부터 시공까지
기업 정체성·경영철학 잘 담아내

조서윤 회장 "디자인 핵심은 비움 불필요한 포장 없애는 게 중요"

연평균 180% 매출 성장

1995년 자본금 1억원으로 창업
외국기업 오피스 설계로 인지도 ⬆

무차입 경영 – 작년 매출 2300억원

인도·필리핀 등 해외진출 박차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확장

다원디자인은 1995년 당시 36세이던 조 회장이 창업했다. 직원 3명의 자본금 1억원짜리 기업이었다. 성균관대 화학과를 다니던 조 회장은 "미국에선 인테리어 디자인이 뜨고 있다"는 교수 의 말을 듣고 유학길에 올랐다. 오하이오대와 플로리다주립대 대학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선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 시장의 성장성을 믿고 창업을 결심했다. 창업 직후인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졌다. 조 회장은 위기를 오히려 사업 기반을 넓히는 기회로 삼았다. 알리안츠, HSBC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국내에 진출했다. 기업 설명서와 사업계획서를 들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국내 진출을 준비하는 글로벌 기업을 알아내 접촉했다.

오피스 설계에 관심이 높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다원디자인의 패기와 뚝심을 높이 샀다. 외국계 기업으로 인맥을 넓히고 실적을 쌓으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입소문이 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 호텔, 컨설팅회사들이 다원디자인을 찾았다. 리바이스, 맥킨지앤드컴퍼니, 맥쿼리,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마쉬코리아, 한국IBM,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 콘래드 서울 호텔, IFC몰 등이 이렇게 다원디자인과 인연을 맺었다.

다원디자인의 창업 첫해 매출은 50억원. 2005년 500억원을 넘어서더니 2011년엔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17년엔 처음으로 연매출 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2300억원. 연평균 180%씩 증가한 셈이다. 영업이익률도 8%에 달했다. 다원디자인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최근 인도와 필리핀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檢기소로 수세 몰린 타다 위법성 시비 피해갈 길 열리나

≫A1면 '타다 기사는 프리랜서'에서 계속

타다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타다 서비스의 존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택시업계와 국회, 검찰 모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전자를 고용해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타다 운전자의 지위를 '프리랜서'로 사실상 규정해 위법성 시비를 피해갈 통로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타다 운전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행정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A씨가 이번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또 한 차례 판단을 하게 된다. 대법원 등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배달원·대리기사 등)의 '근로자 지위' 인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판정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2018년 4월 배달대행 기사, 같은 해 6월 학습지 교사가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며 근로자 범위는 계속 확대돼왔다.

서울지방노동위는 A씨가 근로자로 보기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주중에는 다른 사업장에 소속돼 일하며 주말에만 타다 운전을 했으며, 근무 여부와 근무 시간·장소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타다 운행 과정에서 VCNC가 운전자에게 복장 및 근무태도 등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제시한 것 역시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전한 차량 운행 유도, 서비스의 차별성 부각 등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플랫폼 업체가 일정 수준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더라도 고용인으로서 종사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 측의 매뉴얼은 직업윤리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서울지방노동위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지방노동위의 판단은 이달 예정된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타다가 사실상 유사 택시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기소한 것에 대해서다. 기소장에서 검찰은 타다가 운전자들의 출퇴근과 휴식을 관리·감독하며 사실상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의 이번 판단은 검찰 기소의 핵심 논리관계를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

노경목/김남영 기자 autonomy@hankyung.com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최고위 과정 모집안내"
YONSEI, Leading the Way to the Future

제1기 연세 CEO 마인드 웰니스 과정
"마음과 몸"의 웰빙을 통한 CEO 정신건강 프로젝트

구 분	주요 프로그램	주요 강사진	
CEO 정신 웰니스 (Mental Wellness)	CEO의 내면을 검색하라	배영대	중앙일보 학술전문 기자
	명상의 심리학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 소장
	왜 명상에 빠져드는가?	김보연	위드컬러 R&D센터 대표
	관계를 증진시키는 공감 대화법	김완두	KAIST 명상과학연구소 소장
	CEO의 스트레스 마음 처방전	박민수	서울ND의원 원장
CEO 신체 웰니스 (Physical Wellness)	체질로 알아본 건강 관리	박상미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
	CEO를 변화시키는 유머의 힘	신상훈	톡킹스피치 대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유정은	한국내면검색연구소 / 마보맵 대표
CEO 체험 웰니스 (Experience Wellness)	국립산림치유원 워크숍(1박 2일)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	장일범	음악평론가
	티베트 전통 싱잉볼 명상 체험	채정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농장에서 즐기는 힐링타임 - 팜파티 외 다수	천시아	사)한국싱잉볼협회 협회장 외 다수

입학안내
1 모집기간 : 2020년 2월 21일(금)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일시 : 입학식 – 2020년 2월 26일(수)
본강의 – 2020년 3월 2일(월) ~ 6월 15일(월)
(매주 월요일 17:50 ~ 21:10, 석식 포함)
수료식 – 2020년 7월 8일(수)
3 강의장소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신촌캠퍼스) & 외부 강연장
4 지원자격 : 삶의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정신을 다이어트 하고자 하는 CEO 및 임원

제1기 연세 영업 마케팅 최고위 과정
저성장시대를 돌파하는 생존 키워드

주요 프로그램	주요 강사진	
저성장시대를 이기는 영업 기술	연세대학교 전문 교수진을 비롯하여	
성과를 만드는 영업 조직 구축	김문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크립토MBA 주임교수(BeCrypto CEO)
B2B, B2C 영업 A to Z	김용기	쉬플리코리아 대표
꾸준한 매출로 가는 고객 관리 방법	문달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고객을 사로잡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박상기	BNE컨설팅 대표(한국협상학회 부회장)
마케팅 혁신 사례 분석	손동진	크레마월드와이드 대표(前 제일기획 AE)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	윤용찬	데이터마케팅코리아 본부장
흐름을 이끄는 디지털 마케팅	이라경	에이블랩 대표
지속적 성장을 위한 브랜딩 기법	이법수	세일즈포스코리아 본부장
시대를 주도하는 2020 트렌드	이상화	한동대학교 ICT창업학부 교수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 기법	이장석	한국영업혁신그룹 대표(前 한국IBM 부사장)
블록체인 경영 전략 외 다수	임진환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외 다수

입학안내
1 모집기간 : 2020년 2월 21일(금)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일시 : 입학식 – 2020년 2월 26일(수)
본강의 – 2020년 3월 4일(수) ~ 6월 17일(수)
(매주 수요일 17:50 ~ 21:10, 석식 포함)
수료식 – 2020년 7월 8일(수)
3 강의장소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신촌캠퍼스內)
4 지원자격 : 매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기업 경영자 및 임원
영업·마케팅 역량을 키우고 싶은 기업 중간관리자 및 담당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분 등

수료 특전
❶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❷ 세브란스 체크업 건강검진센터 20%할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❸ 과정별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 활동 지원
❹ 업계 최고의 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 제공

인원·전형 모집인원 : 과정별 60명 내외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합격통보

문의 접수 TEL : 02-2123-3826
E-mail : yuceo@yonsei.ac.kr
http://gli.yonsei.ac.kr

카카오톡 채널 ID : 연세대학교 글로벌교육원
(※ 카카오톡 '친구', '채팅'의 Q(검색)란에 "연세대학교 글로벌교육원" 검색)